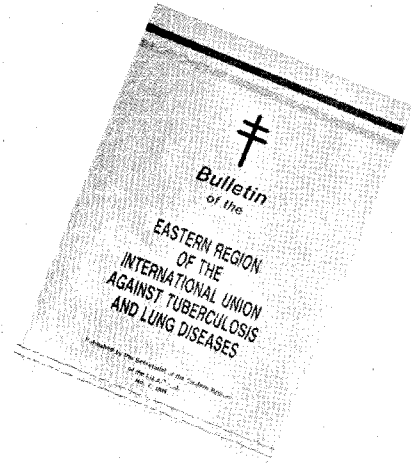


# IUATLD 동부지역

## 회원국 88년도 활동 요약



이 글은 IUATLD 동부지역 사무국이 1989년 펴낸 회보 중에 실린 “회원국 활동상황”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결핵협회 회장이었던 로에시아 살조노 여사가 그의 지병으로 1988년 11월 13일 타계하였다. 본 협회의 창설자의 한 사람으로 지난 20년간 헌신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그의 타계는 우리나라 항결핵운동의 큰 손실이다.

전국회의가 1988년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25개 도와 130개 지역 지부에서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신임 회장으로 서파르조 루스담 여사가 선출되었으며 압둘 마나프 박사가 신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본 협회는 그 명칭을 폐질환협회로 개

칭하지 않고 아직 결핵 박멸이 주목적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인도네시아 결핵협회로 명칭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협회는 정부기구지원을 받아 포괄적 결핵관리를 시행 추진하기 위하여 각 도에서 1개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무료 항결핵치료약제의 공급을 위하여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하는 별도조치를 1988년부터 1992년에 걸친 포괄적인 사업계획으로 착수하였다.

## 일본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부처를 일본 결핵예방회의 결핵연구소내에 1988년 4월에 설치하였다. 그 명칭은 국제협력부로서 2개 부서가 있다. 그 하나는 사업개발부로서 해외사업 개발과 국제결핵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을 하고, 다른 하나는 사업인력부로서 외국에서 오는 의사와 보건요원을 위한 국제훈련과정을 맡는다.

예년과 같이 결핵연구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제결핵훈련코스를 실시하였다.

(1) WHO와 일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결핵코스가 1988년 6월4일부터 10월14일까지 개최 되었으며 동 과정에는 20개국에서 24명의 의사가 참여하였다.

(2) 6주간의 의료관리코스에 9개국에서 10명의 의사가 참여하였다.

(3) 4개월간에 걸친 검사업무에 관한 그룹훈련과정에 8명의 임상병리사가 교육을 받았다.

제 2차 WHO / 일본이 주관하는 중국 전문가들을 위한 결핵관리 워크샵이 북경에 있는 국립결핵연구센터에서 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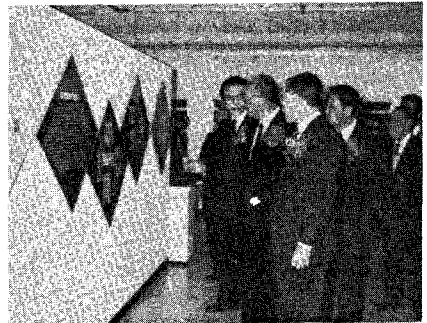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도와 시에서 결핵관리를 담당하는 19명의 중국 의사들이 참여하였다. 일본결핵연구소의 아오끼 소장과 3명의 의사들이 WHO임시고문관으로써 강의를 받았다.

나카지마 박사가 WHO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일본결핵예방회 의료이사인 시마오 박사가 집행부의 일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미 노동자간의 결핵 문제가 외국 노동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대두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보건후생성에 구성 되었으며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하여 협조요청이 결핵연구소에 제의되었다.

1989년 초부터 현재 구내에 완공된 결핵연구소 신청사로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며 85실을 갖춘 기숙사도 4층 신청사에 포함되어 있다.

## 한국



세계크리스마스셀 전시회(세종문화회관)

대한결핵협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심포지움과 세계크리스마스셀 전시회가 1988년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의 주제는 “결핵문제 해결되었는가”였으며 TSRU의 스티브로 박사를 초대하여 “결핵의 세계적추세”에 관한 강의를 가졌다. 한편 전시회는 기금마련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국제결핵훈련과정에 참석한 12개국의 14명의 의사들이 1988년 10월17일부터 28일까지 내한하였다. 국내훈련으로써 의사, 간호사, 검정자, 일선결핵요원과 보건행정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훈련기간은 3일부터 2주간등이 있었으며 연인원은 133명이었다. 246명의 의료학생들이 결핵연구원에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보수교육반으로 33명의 보조요원들의 교육이 있었다.

보건교육과 국가결핵관리의 기초자료를 얻기위하여 2개의 조사가 있었다. 즉 KAP(결핵인식도 조사)와 결핵사망률조사였다. 결핵인식도조사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 중 2,000명, 고등학교 학생 3,000명 그리고 가정주부 3,000명등 총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망률조사는 51개 읍·면·동을 선정하여 1987년 7월 1일을 기하여 1년간 실시하였다. 조사지역 주민은 760,205명이며 조사기간중 0.47%에 해당하는 3,572명의 사망보고가 있었으며 분류가능 3,268명중 222명(6.8%)은 결핵치료력이 있었다. 그중 83명(2.5%)은 결핵으로 사망하였다.

일선 보건소요원이 객담검사한 슬라이드의 재검검이 1968년 이래 실시되었다. 1988년에는 일선요원이 양성으로 판독한 슬라이드의 0.3%는 균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비슷한 수인 0.6%는 음

성으로 발견되었다.

## 네 팔



결핵협회는 지역별로 보건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중 10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결핵에 관한 보건교육과 동시에 금연, 위생, 가족계획등 과제도 본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였다. 포스타 계시도 있었으며 전단, 포스타등을 마련하여 무료로 배부하였다.

협회에서 8개 결핵자료소를 두고 3개지역에서 X-선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지역의 협회 진료소는 치료탈락자 예방을 위한 환자 독려와 가정방문등 특수조치를 이행하여 정부 결핵관리를 지원하였다. 결핵검사소가 서독기구의 지원으로 카투만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결핵환자를 위하여 배양검사와 약제감수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는 결핵요원의 훈련을 계속 이행하고 있으며 이들 요원들은 지역별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1년간 431명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보건교육과정에 있어서도 20개 지역에서 60개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